



“관광객 찾아오고 소득 는다니 마을에 생기가 돌아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광주 충효동 평촌마을의 특별한 설

약초산채 체험장·하천 정비·장터 복원 사업에 큰 기대

“이참에 명품마을 만들자” 경로당·쉼터 모여 이야기 꽃

무등산 북쪽 자락, 광주에서 동북쪽으로 가장 끝에 산다는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주민들이 맞은 올해 설은 남다르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획기적인 마을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수마을로도 알려진 이곳은 여느 농촌마을과 다른 점이 없지 않다. 어른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통장과 부녀회장 등을 중심으로 ‘마을 청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 활기가 넘친다.

지난 5일 농협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보답 대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주민들의 화젯거리는 역시 내달 공식지정을 앞두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이었다.

경로당과 마을 쉼터에 모인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되면 달라지겠지’ ‘이참에 마을 발전을 위해 뭘 해야할지’ 등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관광객들도 지금 보다는 많이 찾을 거구요. 시골이라 벌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돌과구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녀회장으로 마을 공동체 운영을 맡고 있는 공문주(50)씨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녀는 “무등길이 생기고 나서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도 다시 활기를 찾았고 무엇보다도 두부며 산채류 등을 팔아 수익이 생기니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젊은 사람들이 나서 어르신들을 설득해 공원마을 편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국립공원 명품마을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뒷산의 약초와 산채를 이용한 약산채체험장, 하천 친환경 복원사업 등을 벌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생 마을을 지키며 살았다는 김재봉(82) 어르신은 “이곳은 답양·화순 사람들이 갖고 개개(무등산 전방대)를 넘어 광주로 가는 길목이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길을 걷

을때면 옛날 나뭇꾼들이 지게에 나무를 지고 가다 쉬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련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왕 개발하려면 좋은 방향을 잡아 정겨웠던 옛풍경을 되살리는 쪽으로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기대가 너무 과장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금까지 근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지장을 받았는데 관련법만 바뀌지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원마을지구에 포함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간에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일부 소작농은 경작권 문제로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됐다.

쌀과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최도수(70)씨는 “농사짓는 우리로서는 맘만 상하지 특별한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주민 이원영(61)씨는 “며칠전 마스크를 통해 국립공원이 된 후 발전했다가 몰락해버린 설악산 국립공원의 한 마을을 접할 수 있었다”며 “우리 지역도 현재 보다는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인 만큼 공단이나 관련 기관이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공단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주민도 주민 나름의 대안과 협조체계를 갖춰 국가와 주민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이날 모임에서 지금은 사라진 평도마을과 담안 장터를 복원하는 문제, 마을 앞 하천 정비와 약산채체험장 진흥상황을 설명 들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60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사는 무등산 국립공원 명품마을의 밝은 미래가 그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5일 평촌마을 주민들이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무등산쪽을 가르키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건강하고 풍광좋은 마을 명성 전국에 알려야죠”

평촌마을 정태영 통장

“문화·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인데, 공원마을 지정에서 배제되면 더 큰 손해가 될 것 같아 과감히 결정하게 됐죠. 마을 발전을 위해 장점도 많다구 생각했구요. 마을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했죠.”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 등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기도 한 일부 지역과는 달리 ‘국립공원에 포함해 달라’며 국립공원 마을에 자원한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정태영(62) 통장은 조용한 마을에 희망을 심자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설득하느라 고충도 있었다는 정 통장은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되고, 이제는 뭘가 색다른 사업을 제안해 오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패배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정 통장은 “평촌마을은 반상회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매달 개최될 정도로 단합이 잘되는 마을”이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통장은 이를 위해 마을 앞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다양한 하천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며 마을 뒷산에 약초와 산채류 재배를 확대해 약선음

식체험장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옛 장터인 담안장터를 복원하는 사업을 펼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곳은 광주와 담양, 화순민들간에 물물교환 장소였다는 데를 복원해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저장거리를 만들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육성하면 성공할 수 있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공원마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또 다른 갈등도 생겼고 이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통장은 “현 4개마을 중 3개만이 국립



공원에 포함돼 포함되지 않은 마을 주민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고, 도예공방 등 체험장들이 지구밖에 있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려운 결정을 해놓고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가 없거나 규제만 늘어났다면 큰 문제”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 젊은이들과 힘을 합치고 어르신들과 충분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장수마을 1호...무등산 수박 등 생태농업 활발

무등산 평촌마을은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마을로 지원한 평촌마을은 광주시 동북쪽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광주 중심지에서 20여분 거리다. 무등산에서 시작되는 가장 큰 하천인 증암천이 마을 앞으로 흐르고, 뒤로는 무등산 자락인 금산이 두르고 있는 전형적인 산마을이다.

닭뿔, 동립, 우성, 담안 등 4개의 자연마을이 모여져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며 마을 앞으로는 평무밭이 펼쳐져 있어 농사 짓기도 좋은 곳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쌀 농사를 짓고 축산, 허브, 무등산 수박 등 복합농업 형

태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마을에서는 도자기와 천연염색 생산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평촌도에공방을 중심으로 무등산 분청사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005년에는 광주시 지정 장수마을 1호로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 소일거리 만들어 주기, 치매 예방 및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민속공연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마을 전체가 웨딩포토 촬영장으로 이용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많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마을전체가 웨딩포토 촬영장으로 이용될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평촌마을.